

**SKT, 대학 AI 인재 위해**

**‘AI 커리큘럼 라이브’ 온라인 행사 개최**

**- 대학생 및 교수 대상으로 반도체, 영상, 보안 등 SKT AI 활용 분야 소개**

**- 5G·AI 산업 관련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으로 현장 경험 생생하게 전달**

**- SKT AI 커리큘럼, 21개 대학 40개 과목 도입된 인기 프로그램 자리매김**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0.27]**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국내 대학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에 대한 강의 및 체험을 제공하는 ‘SKT AI 커리큘럼 라이브’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지난 26일 오후 판교사옥 기술전시관 테크 갤러리 온라인 투어를 시작으로 SKT의 첨단기술 담당 임원이 진행하는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한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 지역 대학교 교수진 및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SKT가 AI 기술 이론과 실무 노하우가 담긴 동영상 강의를 국내 대학교에 제공하는 ‘SKT AI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강사들과 직접 만날 수 없는 동영상 강의의 한계를 넘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SKT는 온라인 투어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반도체 ‘사피온’, AI 카메라 기반의 영상·이미지 실시간 분석 서비스, AI 자동화플랫폼 ‘메타러너’, 오래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주는 ‘슈퍼노바’ 등 테크 갤러리에 전시된 다양한 기술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SKT 이종민 T3K 이노베이션 CO장(컴퍼니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인 5G와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반기술 및 서비스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 학생들의 실시간 질문을 바탕으로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ICT 기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조언도 전했다. 이종민 그룹장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다수의 기술특허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SKT AI 커리큘럼’은 국내 대학 이공계 학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 확산되고 있다.

2017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AI 커리큘럼’은 해마다 콘텐츠를 강화하며 2,000 여명이 수강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현재 전국 21개 대학교 40개 과목에 도입된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SKT는 앞으로도 ‘AI 커리큘럼 라이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국내 대학교들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를 활용해 AI분야 진로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AI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SKT와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예정이다.

SKT 신상규 기업문화센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AI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학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캠퍼스의 학생들이 ICT 산업을 이해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국내 대학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에 대한 강의 및 체험을 제공하는 ‘SKT AI 커리큘럼 라이브’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SKT는 지난 26일 오후 판교사옥 테크 갤러리 온라인 투어를 시작으로 SKT 이종민 T3K이노베이션 CO장이 진행하는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한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 지역 대학교 교수진 및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 관련문의:** **SK텔레콤 PR실 우현섭 매니저 (02-6100-3854)**

**<끝>**